

카본블랙의 國際紛爭

— 歐美는 認定, 日선 不特許 —

國內企業끼리 外國市場을 占有하기 위하여 外國에서 特許出願을 契機로 熾烈한 特許紛爭을 展開했던 옛이야기 한토막.

1959년 여름 美國의 最大電極生産企業인 캐보트會社가 카본블랙製造에 관한 技術을 日本 特許廳에 特許出願하였으며 61年 4월에 出願公告되었다.

이 카본블랙이란 天然가스, 炭化水素를 不完全燃燒시켜 만드는 黑色고름이며 用途는 고무타이어 充填劑, 印刷잉크, 塗料의 顔料등에 使用되는 材料이다.

캐보트가 특허출원한 發明內容은 카본블랙의 形成過程에서 알카리金屬을 供給하는 方法이다. 즉 原料가 되는 液狀炭化水素를 炭化水素分解溫度로 維持된 反應帶域에 알카리金屬을 공급하는 特徵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특허청의 출원공고에 대하여 같은 美國企業인 콜롬비언 카본會社가 異議申請을 提起하였다. 이때에 日本의 三菱化成會社가 同調하였으며 結果는 62年 8月 拒絕査定되었다.

拒絕理由는 파네스技法이라는 카본블랙에 관한 美國特許가 있는데 캐보트가 출원한 技術은 이 특허와 類似하다는 것이다.

이같은 거절사정에 대하여 캐보트는 査定不服審判을 請求하였다. 1年餘에 걸친 審決은 특허할수 없다는 結論이 었고 64年 5月, 캐보트는 東京高法에 拒絕不服訴訟을 提起하기에 이르렀다. 이때에는 原告側에 東海카본會社가 補助參加하였으며 東海카본은 캐보트와 獨占의 技術提携關係에 있었다.

또한 被告는 特許廳長이고 三菱化成과 콜롬비언이 보조참가하였으며 모든 被告活動은 三菱化成과 콜롬비언이 도맡았음은 두말할나위가 없다.

6年동안의 審決期間中에 캐보트는 美, 英, 西獨, 佛등 10餘個 先進技術國들로부터 同技術에 대한 特許料만도 300億圓이상을 받아들이고 있었으며 日本企業들에는 日貨로 80億圓以上の 損害賠償을 청구하리라는 소문이었다.

그러나 70年 6月 23日 判決은 캐보트의 청구를 棄却한다는 結論이 었다. 理由인즉 캐보트가 출원한 發明은 그 表現에 差異가 있을 뿐으로 파네스技法을 基調로한 카본블랙의 製法과 實質의인 차이가 없다는 判斷이었다.

다시말해서 파네스技法에 의해 카본블랙을 제조할 경우에는 原料炭化水素를 水에 溶解으로서 反應爐에 供給한다. 그러나 通常에 溶解化에 사용되는 물은 工業用水이며 그속에 알카리金屬이 包含되어 있다. 이같이 加水하는 目的의 하나가 카본블랙 製品의 性質改善에 있으므로 알카리金屬을 供給하여 성질개선을 한다는 캐보트의 發明에 新技術思想의 存在를 確認할수 없다는 判旨였다.

이 特許紛爭結論에 대하여 그 當時만해도 日本보다는 歐美쪽이 先進工業國일뿐 아니라 歐美쪽에서는 한 나라가 아닌 10餘個國에서 發明特許가 認定되어 莫大한 特許料가 오고 갔음에도 不拘하고 유독 日本에서만은 不特許되었다는 점에 쉽사리 理解가 가지 않는다는 뒷공론도 없지 않았다.

특히 캐보트는 歐美의 經驗으로 미루어 日本에서의 特許確立은 自信을 갖고 있었으며 勝訴가 確定되면 日本의 카본블랙生産企業들을 相對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準備中에 있었다.

어쨌든 市場에 上陸하느냐 아니면 數個企業이 倒産하느냐의 11年걸린 大特許繫爭이었음은 當時의 國際輿論이 立證하고 남음이 있다.